

## 예능이 '힐링'을 표현하는 방식

JTBC <효리네 민박>

정은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덜 인공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다. 맵고 짜게 먹던 과거와 달리 웰빙(well-being)을 외치며 덜 맵고 덜 짜게 먹고, 인공 조미료를 멀리하고, 자연주의를 찾아 도시에서 고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집 떠나 떠나면 곳의 휴양지라도 찾아가 안정과 평안을 추구했다. 이처럼 웰빙의 존재론은 힐링의 치유론으로 쉽게 전환되었다.

텔레비전 또한 '힐링'에 주목했다. JTBC에서 제작한 <효리네 민박>은 이러한 '힐링' 유행에 편승하여 대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첫 방송된 <효리네 민박>은 현재 제주도에 거주 중인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본인들의 집에서 실제로 민박집을 오픈하여 일어나는 일상들을 담은 일상 관찰 예능의 형식을 취하였다. <효리네 민박>은 방영 첫 화부터 세간의 주목을 끌며, 종편 예능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청률 9.995%(닐슨 코리아 기준), 마지막 화 시청률 8.1%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종영하였다.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힐링을 선사한 <효리네 민박>은 종영한 후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유례없는 힐링 예능이었다는 평이 가장 많았다.

## 힐링 예능의 선두 주자

<효리네 민박>은 최근 예능 트렌드를 이끄는 관찰 예능의 가장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출연자의 하루를 온전하게 보여준다. 24시간 출연자의 동선을 따라다니는 예능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기존의 관찰 예능은 한꺼번에 많은 출연자들이 등장하다 보니 다소 번잡하고 개인의 서사를 만들기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는 인터뷰를 삽입함으로써 해당 장면에 극도로 몰입한 시청자를 방해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기도 했다. 하지만 <효리네 민박>에서는 이런 연출을 상당 부분 배제하였다. 카메라는 이효리·이상순 부부와 출연자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일상을 모두 담는다. 또한 방송에서는 이런 모습을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시청자에게 제공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일상을 실제로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더욱 강하게 주어 시청자의 몰입을 도왔다.

둘째, 출연자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배경을 가졌다. <효리네 민박>에 출연한 사람들은 모두 '제주 관광'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인간 군상뿐만 아니라 제주시의 자연 경관도 함께 보여주며 관찰의 대상을 인간 군상에서 자연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셋째, 제작진이 노출되지 않는다. 기존의 리얼리티 예능에서는 제작진이 개입하거나 다소 비상식적인 연출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정해진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는 100%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여겼던 방송상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효리네 민박〉은 숙박객을 모집할 때와 특별편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장면 외에는 제작진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이것은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민박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착각을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만들어낸 시너지는 분명 〈효리네 민박〉의 성공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효리와 이상순, 아이유가 만들어내는 평온하고 따뜻한 분위기와 서로서로 배려하는 민박객들의 모습, 거기에 간간이 더해지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까지. 우리는 이 모든 모습들을 편안하게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리네 민박〉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나치게 안정감을 강조하여 실패 없는 예능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힐링’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효리네 민박〉이 어떤 문제점을 가졌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 ‘힐링’한다는 것

힐링 예능이 이처럼 득세한 것은 사람들의 필요와 선호에 미디어가 먼저 응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전의 인기 있던 예능은 주로 스튜디오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과 쇼를 하거나, 방송사의 은밀한 사정이나 스타의 스캔들 같은 수위 높은 토크가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었

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즐길 만한 콘텐츠들은 이미 영화와 오락, 드라마 등에서 충분히 소비되고 있다. 이제 시청자는 자극적이지 않은 여백이 있는 콘텐츠를 선호한다. 바로 그 중심에 힐링 예능이 있다.

하지만 이효리는 앞서 예능에 출연하며 〈효리네 민박〉에는 분명 판타지가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또한 시청자가 기대하는 장면들, 일명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방송상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와 함께 〈효리네 민박〉 안에서 ‘힐링’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선함을 보여주거나 위로를 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선한 인간에 대한 갈망

〈효리네 민박〉은 인간은 원초적으로 선한 존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효리네 민박〉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모두 선하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행동하는 모습은 분명 시청자에게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대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게 한다. 시청자는 프로그램 곳곳에 배치된 선함을 감상하면서 그동안 충족될 수 없었던 ‘선한 인간’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고 쾌락을 느낀다.

이상순과 아이유의 캐릭터 또한 선하다. 이상순은 과거 악동 이미지가 강했던 이효리와 마찰 없이 지내고, 숙박객에게도 차를 태워주는 등 친절을 베풀면서 ‘순둥이 남편’ 콘셉트를 고수했다. 아이유 또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과 최근 음원에서 보이고 있는 ‘자아 찾기’ 행보 덕분에 대다수의 국민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 프로그램 안에서 선함의 대명사로서 활동하였다.

또한 인간의 선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방식은 동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동물을 학대한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효리네 민박〉에서는 동물과 교감하는 인간을 중점적으로 노출하였다. 이것을 위해 어린 소년이 동물과 친해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동물이 먼저 다가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었다. 또한 마지막 화인 특별편의 숙박객 인터뷰에서도 ‘선’은 끊임없이 강조된다. 숙박객 인터뷰의 대부분은 이효리와 이상순, 아이유의 배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할애되었다. 톱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숙박객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조금 진부할 수도 있는 메시지는 이효리가 이미 이전에 Mnet의 〈오프 더 레코드〉 등에서 보여준 톱스타의 털털한 모습에서 친근한 동네 언니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위로만으로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면

민박객 소수의 감성적인 고민이 지나치게 부각된 것도 문제다. 이것은 화제가 된 사연자와 일반인 민박객의 정보의 무게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일반인 민박객의 경우 대부분의 대화가 요리를 하거나, 바비큐를 하면서 찢찢매거나, 설거지를 생탈하기 위한 한정적인 모습으로 노출된다. 여기서 시청자들이 공개된 정보 이외의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효리네 민박〉에서 일반인은 시청자가 아닌 출연자와만 소통하는 존재인 동시에 피상적으로 그려지는 존재로 남게 되었다. 하지

만 화제가 된 사연자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단순한 정보 만으로도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어릴 적 엄마를 여의고 살아가는 삼남매의 경우도 그렇다. 이러한 사연의 편향성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가 이 정보를 음미하고 내면화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방송 직후 이 민박객에 대한 과도한 관심의 주된 요점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밝고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이 ‘짠하고’, ‘안타깝다’는 것투성이였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 개인을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노출시켜 보여주는 <효리네 민박>의 편집 방식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미 이효리는 과거에 여러 토크쇼와 예능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노출된 바가 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과거에 보았던 털털한 이효리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도, 내심 이효리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 점은 프로그램 안에서 해소되었다. 이효리는 대화를 통해 숙박객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을 위로한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전부 내려놓은 스타’의 모습으로 숙박객 그리고 더 나아가 화면 밖 시청자에게 다가갔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효리의 말 하나하나, 생활 방식 하나하나를 전부 인간 이효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선망하는 경향을 갖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두려움을 단순히 ‘잘될 거야’라는 말로 포장하는 피상적인 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효리’이기 때문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톱스타 이효리의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일반인과의 거리를 더 좁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편집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조금 더 내밀한 모습과 고민 해결 방식이 나타나야 했다. 방송 후 단순히 “여유를 배우고 간다”는 일반인의 말은 일반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재한 채

단순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제작진의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 우리는 정말 ‘힐링’하고 있는가?

〈효리네 민박〉에서 보여지는 이효리의 삶의 방식, 음악과 고민 상담, 자연경관, 그리고 요가를 통해 얻는 안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효리네 민박〉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지점은 실패한 예능이 되지 않으려는 발버둥이다. 이효리라는 톱스타와 제주도라는 미지의 공간의 결합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시청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착한’ 예능을 표방하기 위해 문제는 거의 노출시키지 않은 채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큰 문제이다. 우리는 〈효리네 민박〉을 보면서 사회와 전혀 동떨어진 피상적인 위로와 웅장한 자연경관만을 힐링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효리네 민박〉은 오로지 제주로 시작해 제주로 완결 나는 한 편의 판타지 드라마 같은 예능이었다. 출연자들은 이 속에서 평화로운 하나의 가족 같은 존재로 보여졌다. 그러나 이 가족의 가장 노릇을 하는 이효리가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우리에게 진정 와닿지 않는다. 즉 〈효리네 민박〉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원초적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효리네 민박〉에서 얻은 힐링으로 다시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에 뛰어들어 열심히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나아가 이것은 다른 여타 힐링 예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힐링이 필요한 시대이다. 개인을 넘어 사회구조까지 ‘힐링’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판타지 세계를 훑쳐보며 각자 현실도피를 감행할 텐가?